

캠퍼스에서 AI 작곡도 공부했어요!...

GIST, 사회공헌 프로그램 'AI 꿈나무 캠프' 개최

- 16일(월) 순천 주암중학교 전교생 23명 GIST 캠퍼스로 초청
- GIST 사회공헌단 '피움', '찾아가는 과학캠프'부터 'AI 꿈나무 캠프' 까지... 교육소외지역 학생 대상 체험형 이공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 GIST AI 꿈나무 캠프에 참여한 순천 주암중 학생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16일(월) 순천 주암중학교 전교생 23명을 캠퍼스로 초대해 'AI 꿈나무 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I 꿈나무 캠프'는 과학계의 트렌드를 주도하는 인공지능(AI)이 중점 연구 분야 중 하나인 GIST가 교육소외지역 중고등학생에게 AI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진로체험을 제공하고자 기획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 **AI 꿈나무 캠프**: 2021년 KT의 AI MAKERS KIT 후원을 통해 '찾아가는 과학캠프 - AI 캠프'로 시작해 2022년 'AI 꿈나무 캠프'로 프로그램을 정비, 올해로 3년째 진행되고 있는 행사이다.

실질적인 체험형 AI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준비된 이번 캠프는 ▲캠퍼스 투어 ▲AI KIT(인공지능 스피커) 제작 및 코딩 수업 ▲연구실 체험(연구실 투어 및 연구 성과물 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현장에서 **학생들의 만족도와 참여도가 높았다**.

'AI KIT 제작 및 코딩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AI에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평소 쉽게 접할 수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수업**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3시간에 걸쳐 직접 **나만의 인공지능 스피커를 만들고 블록 코딩을 이용해 스스로 코딩까지 완성했다**.

이후 학생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았던 '연구실 체험 프로그램'에서는 AI대학원의 안창욱 교수(메타-진화기계지능 연구실)가 개발한 국내 최초 AI 작곡가 '이봄(EVOM)'의 작곡 시연을 비롯해 'Chat GPT 기능을 활용한 가사 및 자동 작곡 과정', 그리고 '얼굴인식을 기반으로 한 무드 기반 즉석 작곡' 등 흥미로운 인공지능 작곡 연구를 직접 체험하며 AI와 한층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다.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평소 인공지능이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는데 실제로 경험해 보니 흥미로웠다"며 "연구실에서 얼굴 사진만 찍었는데 1분 만에 바로 노래가 작곡되어 나오는 게 특히 신기했고, 코딩을 직접 해보니 생각보다 재미있어 나중에 더 공부해보고 싶어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 지난 16일(월) GIST 사회공헌단 '피움'이 진행한 'AI 꿈나무 캠프'에서 주암중 학생들이 AI 코딩팩(AI 스피커 만들기) 제작 및 코딩 수업을 진행 중이다.

임기철 총장은 "'피움'의 다양한 지식 나눔 활동 덕분에 GIST는 2021년부터 3년 연속 교육부 및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대학진로탐색캠프 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며, "올해 설립 30주년을 맞아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와 과학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GIST 사회공헌단 '피움(PIUM)*'은 'AI 꿈나무 캠프'를 비롯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폭넓은 지식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피움'은 오프라인 과학캠프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과학캠프'(신안 비금중, 장흥 안양중, 목포 하당중)를 비롯해 'AI 꿈나무 캠프' 등 현재까지 총 4회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 피움(PIUM, P: positive, I: interaction, U: understanding, M: mind): 꽃을 피우는 것과 같이 씨를 뿌리고 물과 거름을 주어 우리 사회에 꽃을 피워 GIST의 향기를 퍼뜨리자는 의미

또한 전국 약 200여 명의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GIST만의 특색 있는 온라인 멘토링 프로그램 **‘지스트 랜선 멘토링’**을 **활발히 운영** 중이고, 특히 하반기에는 오프라인으로 **체험형 이공계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다수 운영할 계획이다.